지상백고좌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

“만나는 모든 이가 부처, 공경하고 공경하라”

B1면에 이어

부처님은 먼 곳에서 계시지 않아
누구나 佛性 지녔으니 모두 부처
佛法대로 따르는 게 佛恩 갚는 일

운경 스님은 남허 스님을 ‘행정능력과 교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선적(禪的) 혜안을 지닌 선지식(善知識)’으로 평가했다. 실제, 남허 스님은 문병을 가서 의식이 없는 정암 스님에게 큰소리로 ‘놓치지 말라’고 할(喝)을 했고, 그 소리를 듣고서 정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필자는 운경 스님이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나는 현현(玄玄)한 무아(無我)이면서 동시에 역역(歷歷)한 진아(眞我)”라고 설하신 의미에 대해 물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도자(求道者)는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 개 마음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달마 대사는 ‘삼계가 혼돈 속에서 일어났으나 본체에서 보면 모두 일심(一心)으로 귀결된다.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들은 마음으로써 깨달은 그 마음을 전할 뿐 말이나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고 설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서 한 사람이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으로 전합니까’라고 물었고, 달마 대사는 ‘지금 그대가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의 질문을 받고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만약 그대에게서 마음이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 것이며 내게 마음이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을 알 것인가?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공간이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근본 부처이다.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마음을 떠나서 보리와 열반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달마 대사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청정한 마음이 곧 보리이고 열반인 것입니다. 마조 선사가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고 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운경 스님은 이어서 ‘본원청정심(本源淸淨心)’을 설명하면서 물을 예를 들었다.



3월 30일 서울 서대문 백련사에서 봉행된 종정 추대법회에서 운경 대종사가 추대 법어를 설하고 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된다. 고정적 본질이 없지만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원청정심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게 운경 스님의 설명이다.

“‘암환주인(巖喚主人)’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서암(瑞巖) 사언(師彦) 화상은 매일같이 자신을 ‘주인공’하고 부른 뒤 ‘예’하고 자문자답했습니다. 이런 자문자답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암시를 걸었던 것입니다. 구도자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의 식신(識神)이 본래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구도자라면 자신의 본성(本性)을 살피는 주인공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운경 스님은 〈열반경(涅槃經)〉에 실려 있는 ‘공덕천과 흑암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불자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공덕천은 복덕(福德)을 주는 여자이고, 흑암녀는 복덕을 없애는 여자입니다. 이 자매가 찾아와 함께 살기를 청하자 부유한 사람은 거절한 반면 가난한 사람은 승낙했습니다.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일까요?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받아들인 가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공덕천이 주는 행복이 흑암녀가 불행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덕천으로 인해 아무리 권세를 누리며 잘 산다고 해도, 나중에는 흑암녀로 인해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고, 공덕천으로 인해 천상에 태어난다고, 나중에는 흑암녀로 인해 육도윤회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행복과 불행은, 순경계와 역경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운경 스님은 백련사 경내까지 나와서 필자 일행을 배웅했다. 필자가 “백련사가 왜 서방정토 도량이냐”는 우문을 던지자 이번에도 운경 스님은 현답을 내놓았다. 운경 스님은 먼저 ‘정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찰(淨刹)’은 ‘청정한 세계의 사찰’을 일컫는다. 그러다 보니 ‘생어정찰(生於淨刹) 유심정토(唯心淨土) 후생극락(後生極樂)’에 대한 뜻풀이도 제 각각이다. 혹자는 “살아서 정토에 간다”고 주장한다. ‘생어정찰’의 뜻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세에서 복락을 누리자는 현실론자들의 주장이다. 다른 혹자는 “마음에 정토”라고 말한다. ‘유심정토’의 뜻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혹자는 “죽어서 정토에 간다”고 한다. ‘후생극락’의 뜻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운경 스님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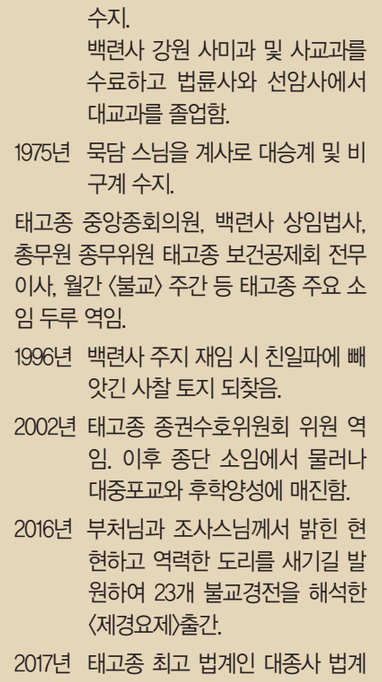
“사견(私見)이지만 세 견해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세 견해는 종적으로 횡적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살아서 정토에 간다는 견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해(苦海)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生), 노(老), 병(病), 사(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성음고(五盛陰苦) 등 팔고(八苦)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토로 구현하겠습니까?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팔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효 대사의 일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는 지난밤 마신 물이 해골 속에 담긴 물임을 알고서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애초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 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원효 대사의 화쟁(和諍) 정신에 입각해 〈육화경(六和敬)〉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으로 화합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身和同住)
입으로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口和無諍)
생각을 함께 하여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意和無違)
계율을 다 같이 지켜야 합니다.(戒和同遵)
견해를 다 같이 해야 합니다.(見和同解)
이익을 균등해야 나눠야 합니다.(利和同均)

운경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집이 아닐까 싶었다. 백련사를 빠져나오는 길, 필자는 〈화엄경〉 ‘탐현기(探玄記)’에 기술된 연꽃의 네 가지 덕이 떠올랐다. 연꽃은 향기롭고 고결하고 맑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씨앗이 진흙에 떨어진 뒤에는 썩지 않고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내다가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다시 피어나는 연꽃들. ‘불법(佛法)의 인연을 만나 주객(主客)이 따로 없기에’ 연꽃들은 ‘어제가 다시 돌아오고 내일이 이미 지나갔어도 침식의 나날 중 일어나 앉아서 살포시 웃는 것이리라.’

유응오 / 작가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는

1943년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 출생.
1959년 서울 백련사에서 설호 스님을 은사로, 금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백련사 강원 사미과 및 사교과를 수료하고 법륜사와 선암사에서 대교과를 졸업함.
197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및 비구계 수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백련사 상임법사, 총무원 종무위원 태고종 보건공제회 전무이사, 월간 〈불교〉 주간 등 태고종 주요 소임 두루 역임.
1996년 백련사 주지 재임 시 친일파에 빼앗긴 사찰 토지 되찾음.
2002년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 역임. 이후 종단 소임에서 물러나 대중포교와 후학양성에 매진함.
2016년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밝힌 현현하고 역력한 도리를 새기길 발원하여 23개 불교경전을 해석한 〈제경요객〉출간.
2017년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고, 2018년 태고종 원로회 원로의원으로 위촉
2023년 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추대됨.

회 주
의 정 대종사
선원장 각 산
외 대중일동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WORLD MEDITATION VILLAGE
◆ 1577-4327 / 010.6408.3280

